

원자력계 동향

한수원 - 경영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청렴도, 노동 생산성 등 25개 지표 중 거의 1위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가 2008년도 발전자회사 경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2001년 한전에서 발전 부문이 분리된 이래 매년 실시한 한전의 발전자회사 경영 평가 결과, 2년 연속 1위에 오른 건 한수원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 등 평가단에 의뢰해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한달 간 지난해 발전자회사들의 경영 실적을 토대로 리더십·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사장 평가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수원은 청렴도 지수, 노동 생산성, 원가 절감 노력, CEO 리더십, 비전 및 사업 전략, 설비 신뢰도,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상생 협력 노력도 등 25개 지표 중 거의 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원전 이용률 93.44%와 호기당 고장 정지 0.35건이라는 역대 최고의 원전 운영 실적, 발전 6사 중 유일한 영업이익 1조 109억원 달성,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등 지난해에 거둔 실적들이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수원은 '발전소별 책임 회계 시스템'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갖춰 내부 경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상생 경영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발전 운영 및 건설 분야의 효율성 향상 등 경영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3조 485억원 조기 집행

한수원, 당초 목표 대비 2,179억원 추가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상반기에 총 3조 485억원의 예산을 집행, 투자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7.7%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41.7% 늘어난 4조 6,600여억원으로 책정, 상반기에 전체 투자비의 60.8%인 2조 8,306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한 바 있다.

이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키 위해 한수원은 연초 '비상경영상황실'을 발족하고 '투자예산 조기 집행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 예산 집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적기에 도출, 해결했다. 또 당해년도 이행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 규정을 바꿨으며 물품의 조기 납품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입찰 공고 기간도 단축,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영세 기업 등에 300억원 지원

비용 절감과 임금 반납으로 비용 마련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생계가 어려운 가정, 실업자, 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00여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김종신 한수원(주) 사장

한수원은 7월 23일 임직원이 비용 절감과 임금 반납으로 마련한 돈으로 서민 생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계가 힘들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족에게 ‘푸른 하늘 푸른 꿈 통장(가칭)’을 만들어주고 430여 각 세대에 6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가정은 관련 복지재단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1부서 1서민가정 결연을 맺고 매월 임직원이 반납한 임금을 통장에 자동이체해 주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300억원 정도다.

또한 한수원은 실업 해소 차원에서 원전건설 전문기술훈련원 정원을 예년보다 5배 많은 총 59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범위도 늘어난다. 올 하반기 약 5만2000여가구에 27억원을 지원한다. 또 한수원은 23억원을 들여 지역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영어강사 고용과 영어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물량도 전년보다 20% 늘어난 2300억원으로 계획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경제 위기로 인한 소득과 고용 기회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과정을 수시로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송재철 관리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책반을 구성해 추가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품질경진대회 역대 최고 성적 달성 한수원, 지역 예선에서 8개팀 본선 진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9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지역예선’에 18팀이 참가하여 8팀이 본

선에 진출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수원은 지난달 각 시·도별로 치러진 전국 품질경진대회(지식경제부 후원, 한국표준협회 주관) 지역 예선에 참가해 고리 1발전소 계측제어팀 ‘FOCUS’ 고리 1발전소 화학기술팀 ‘크리스탈’ 신고리 제1건설소 배관팀 ‘대동맥’ 영광 2발전소 방사선안전팀 ‘ALARA’ 영광 3발전소 방사선안전팀 ‘사과나무 울진 1발전소 방사선안전팀 ‘그린존’ 울진 3발전소 계측제어팀 ‘미래로’ 원자력발전기술원 처리기술팀 ‘한발먼저’ 등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기술원은 ‘연구팀 개선 사례’ 분야에서 한수원 최초로 본선 출전 자격을 확보했다.

올해 역대 최고인 8팀의 본선 진출은 전 임직원들의 큰 관심과 각 사업소장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올 초부터 체계적인 품질 기법 교육, 전문 교수 지도 자문, 분임조 지원 및 포상 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 결과이다.

김세태 한수원 품질보증실장은 “앞으로도 Bottom-up 방식의 품질분임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전 설비의 신뢰성 및 안전성 향상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 최우수 발전 회사로서의 기업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제35차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본선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전년도에도 7팀이 본선에 진출해 대통령상 금상 2팀, 은상 5팀이 수상했다.

사업부제 시행, 본부 간 경쟁 체제 돌입 한수원, 경영 효율 향상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7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회의실에서 책임 경영 체제 정착과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부제 시행 선포식’을 갖고, 이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5개 지역별 사업부 본부장들은 사장과 별도의 경영계약을 새로이 맺고, 사업부제의 성공적 운영과 목표 달성을 다짐



했다.

사업부제 본격 시행으로 앞으로 고리 등 4개 원전본부장과 한강수력본부장은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자율 책임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대신 경영 성과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

예컨대, 본부장들에 대한 평가가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바뀔 때 따라 내년부터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 교체될 수도 있는 등 사업부별 성과 관리 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부 본부장들은 앞으로 소관 사업부의 팀 단위 조직 신설 및 폐지 등 조직 운영 권한을 부여받고, 예산 운영의 자율권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예하 조직에 대한 평가 권한도 강화하여 본부장이 지역 사업부 경영자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 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대신 해당 사업부 본부장에게는 당해년도 또는 임기 중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점 관리 목표가 부여되고, 그 추진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사업부별 부여된 현안 과제나 역점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토록 해 그 성과를 평가받는 등 실질적인 자율 책임 경영 체제가 확립되도록 했다.

또한 사업부의 재무 성과 지표로 EBITDA를 신설하고 사업부별로 목표 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증진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사업부별 이익 향상 노력이 전사적인 재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이밖에도 민원 해결, 노사 관리, 예산 운영 적정성 등의 평가 지표도 강화, 균형있는 성과 평가가 되도록 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정확한 사업부별 성과 측정을 위해 책임 회계 시스템도 보완 중이다.

남아공 신규 원전 시장 진출 추진 한국전력기술(주)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남아공 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초청으로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해 한국전력기술의 발전소 설계기술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남아공의 신규 원전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해 말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총 1만 2,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추진을 전격 취소했던 남아공은 올해 초 출범한 신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원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전 현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자갈발전자로'로 불리는 소형 고온가스로인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남아공은 이를 차세대 원자로로 개발해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가진 한국전력기술과의 협력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남아공 방문도 지난해 한국전력기술의 발전소 설계 기술력에 강한 인상을 받은 브레인 테임스 에스콤 수석부사장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전력기술은 에스콤사 경영진을 비롯해 에드윈 리치켄 남아공 공기업부 차관보를 만나 발전소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 경험 소개와 함께 신규 원전 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했으며 에스콤도 원전 설계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전력기술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안승규 사장은 에스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30여년 전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발전시켜 이제는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전력기술이 보유한 기술력은 원자력 기술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 교육 실시, 500여명 참가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력기술(주)(KOPEC, 사장 안승규)의 2009년도 상반기 전문 기술 교육이 7월 1일부터 13일 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주중기 및 급수계통 설계’ 등 총 14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정은 관련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내부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KOPEC 전문 기술 교육’은 원전 수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중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신규 원전 설계 및 건설을 위해 원자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1999년도에 도입되어 1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0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0개 과정이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원전 성능 해석, 원자로 보호 계통 설계 등 원전 설계 관련 고급 기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원전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을 통한 장기간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한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이다. 특히 ‘KOPEC 전문 기술 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자들은 타 전문 기술 분야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여 원전 설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야간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KOPEC은 오는 9월에도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 등 전반적인 업무 분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하반기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 ‘앞장’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정비 보조 실무 교육 과정 입교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교육원(원장 시인권)은 8월 17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원전기술인력양성센터의 제4차 정비 보조 실무 교육 과정에 대한 입교식을 교육원 및 협력회사 관계자, 교육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원자력교육원은 원전 정비 협력 회사들과 공동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 실무 과정 4회차 교육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서류 심사 및 건강검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65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생들은 2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원전 정비 수행에 필수적인 이론, 실습 및 산업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교육 수료자들은 원전 정비 협력회사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전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사업 참여사간에 원전 기술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교육원에 원전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정비 보조 및 방사선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그 동안 센터는 212명의 원전 정비 인력을 배출하고 201명이 협력 회사에 취업했으며, 현재 123명이 교육 진행 중에 있다.

영광원전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 방사선량 측정 실질 점검에 역점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심규열)는 8월 19일 영광3호기를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을 실시했다.

방사성 물질의 누출 사고를 가상으로 한 방사선 비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비록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경우 주민 보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의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방재 조직의 비상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비상 시설 및 장비의 유용성을 점검하게 됐다.

특히 중점 사항으로 정한 방사선량 측정(발전소 소내·외 방사선량 측정 및 시료 채취, 방사능 분석, 긴급 환경방사선 감시) 분야의 실질적 점검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의 확보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진 5호기, 방사선 안전 부문 세계 1위 WANO 보고서, 국내외 PWR 중 가장 낮은 수치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염택수)는 울진 원전 5호기가 지난해 원자력 발전의

주요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방사선 안전 실적(종사자 방사선량)에서 전 세계 총 264기의 원자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계원전운영자협회(WAN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울진 5호기는 지난해 종사자 방사선량이 0.011 man-Sv로 집계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가압경수로형 원자로(PWR)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치 : 0.7 man-Sv)

이같은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써 운전 능력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 관리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울진원자력은 밝혔다.

미 웨스팅하우스 벤더 등록 상담회 개최 한수원, 세계시장 공동 진출 모색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국내 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Major 원전사업자인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협력, 세계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수원은 7월 8일 원전 기자재 공급 및 협력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 웨스팅하우스사 벤더 등록 상담회를 개최, 세계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상담회는 한수원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 가압경수로 원전 시장 점유율 1위인 웨스팅하우스에 국내 중소기업들을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 중국 및 인도 등 신흥 유망 시장 뿐 아니라 미

국 등 선진 시장에 원자력 기자재를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지난 2007년에 이미 캐나다 AECL과 기자재 공급 MOU를 체결해 국내 13개 중소기업을 기자재 공급자로 등록시켜 총 9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번 웨스팅하우스 벤더 등록 외에도 AREVA(프랑스)와 GE(미국) 등으로 공급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벤더 등록 상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해외 유수의 원전 사업자와의 협력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상담회 개최가 중소기업들의 해외 동반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회 원자력커뮤니케이터 워크숍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이 초중고 학생은 물론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알리미 행사’를 다양하게 벌이고 있어, 차세대 원자력 수용성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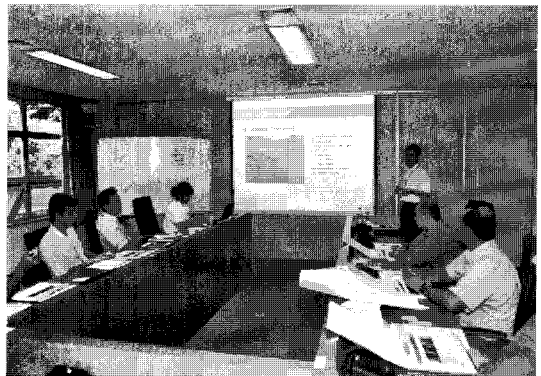
원자력문화재단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와 원자력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원자력커뮤니케이터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원자력 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원자력 분야 오피니언 리더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도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전문가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함께 생활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대화의 기술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았다.

“한국의 핵연료 생산 기술 벤치마킹합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 브라질 INB사 기술진 맞아



브라질의 핵연료 전문회사인 INB(Industrias Nucleares do Brasil)사 기술진이 한국의 핵연료 생산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8월 3일 한전원자력연료(주)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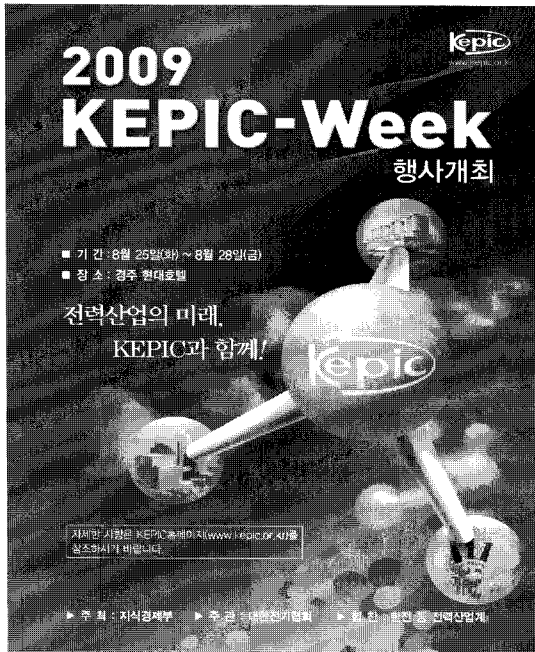
이번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국제정공과 풍산 FNS 등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부품제조 협력회사 기술진이 직접 참여해 현장 실무교육 등으로 꾸며지며 교육 기간은 3일부터 12일까지다.

한전원자력연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 2004년 체결한 양사 간의 기술정보교류 협력협정에 따라 INB사가 자체 개발한 상단 고정체 스프링 제조공정의 검증을 받는데 필요한 한전원자력연료의 기술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제조·품질관리 분야 강의와 자재절단, 기계가공, 열

처리 등 현장실무교육과 참관으로 이들은 상당고 정제 스프링 제조공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INB사는 원전 2기를 운영하는 브라질의 유일한 핵연료 전문회사로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 2002년부터 INB사에 핵연료지지격자와 연료 봉스프링 등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9 KEPIC-Week' 행사 개최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국내·전력산업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기술기준 관련 논문 발표 및 워크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 KEPIC-Week' 행사를 개최한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력산업의 미래, KEPIC과 함께'라는 주제로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 미국기계학회(ASME), 미국 전기·

전자 기술자협회(IEEE)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합동 강연이 펼쳐진다.

또한 품질보증, 기계, 전기, 원자력, 화력, 지진/구조, 화재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0여 편의 논문 발표를 비롯해 원자력 국제표준화 워크숍 운영원전 KEPIC 적용 워크숍 인증업체 세미나 KEPIC 기기검증 워크숍 등 비중 있는 포럼이 병행하여 개최된다.

이와 함께 유공자 포상, 전력산업전시회, 전력인의 만남, 산업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KEPIC-Week' 행사는 대한전기협회가 KEPIC의 전력 설비 적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KEPIC의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 정보 교류, 전력산업계의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상세한 행사 내용은 홈페이지 www.kepic.or.kr 참조

한전원자력연료-한양대, MOU 체결 원자력연료 신기술 개발 공동 연구기로



한전원자력연료(KNF, 사장 이익환)가 국내 원전 증설에 따른 공급량 증가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원자력 연료 해외 수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절대 부족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새로운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산-학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KNF와 한양대학교(총장 김종량)는 7월 15일 이익환 사장과 김종량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단지내 KNF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학술 연구 및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체제 구축 차원의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연료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첨단 기자재의 공동 활용, 인력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위탁 교육 및 협동 강의, 학생 현장 실습 지도 및 시설 제공 등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전반에 걸쳐있다.

KNF 이익환 사장은 “1939년 국내 최초로 사립 공과대학 설립, 1958년 국내 최초 원자력공학과를 개설한 명문사학인 한양대학교와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를 개발하여 원자력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NF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KNF는 서울대(원자핵공학과)와 이미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카이스트(KAIST)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AERI 2호 연구소 기업 출범 서울프로폴리스(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두 번째 연구소 기업이 출범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입주 벤처기업인 서울프로폴리스(주)(대표 이승완, 허용갑)의 연구소기업 전환을 7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프로폴리스(주)는 지난 2006년 3월 대덕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승인 받은 ㈜선바이오텍에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2호 연구소기업으로 탄생했다. 2005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시행된 이래 16번째 연구소 기업이다.

서울프로폴리스(주)는 지난 2003년 2월 한국원

자력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으로 설립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벤처기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 방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 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약품 등의 소재 및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프로폴리스(주)의 연구소기업 전환을 위해 ‘수용성 프로폴리스의 추출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 및 일본 특허, ‘산화티타늄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암모니아 탈취제’에 관한 국내 특허 등 보유 기술 2건을 현물 출자했다. 국가 공인평가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액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현물로 출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프로폴리스(주) 지분 21.05%를 보유하게 됐다.

서울프로폴리스(주)는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 받음에 따라 세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매출액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프로폴리스(주)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양어용 항생제 대체제, 피부재생 크림과 천연 항생제 등을 제품화해서 2013년까지 매출 2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성진지오텍, 원자력 사업 진출 청신호 미 ASME ‘N’스탬프 인증 심사 통과

에너지 종합 중공업 성진지오텍(대표 신언수)이 최근 미국 기계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로부터 원자력 발전 기자재 인증 ‘N’스탬프 인증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진지오텍이 ASME로부터 심사 통과한 부문은 원자력 발전 주기기자재 제작 인증서 ‘N’과 부품 생산 자격 및 원자력기기 조립 인증서 ‘NPT’와 ‘NA’ 등 3개다.

특히, 3건 모두 원자로 안에 설치되는 핵심설비에 해당되는 Class 1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고부가 원전 설비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진지오텍은 이번 ASME 심사 통과에 앞서 지난 2003년 8월 대한전기협회(KEPIC)로부터 국내 원전 설비 공급 자격 인증인 'MN', 'SN' 인증을 모두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진지오텍 관계자는 “원자력 사업 공략 첫 무대를 북미시장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미국 지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원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원자력 분야의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핵연료 명칭 'HIPER' 결정 한전원자력연료(주), 공모 결과 발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수출을 위해 2005년부터 국가전략과제로 개발을 추진해 온 수출 주도형 차세대 고성능 고유 핵연료의 명칭이 'HIPER'로 결정됐다.

'HIPER'는 'High 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의 약자로, 20%의 연료 연소성능 향상, 높은 열적 성능, 강화된 내진 성능(0.3g)을 나타내기 위해 'High Performance'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여기에 높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나타내기 위해 'Efficiency and Reliability'를 조합한 것이다.

한전원자력연료(KNF)는 지난 6월 15~7월 10까지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했으며 약 410건이 접수됐다.

3차에 걸친 심사 결과 'HIPER'를 제안한 양해남 한전원자력연료 선임연구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경기도 의왕시의 이도열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에 근무하는 이태형씨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이외 7명이 가작 당선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HIPER'로 명칭을 정한 이 핵연료는 KNF의 우수한 기술진이 핵연료 완제품의 해외 수출을 목표로 독자 원천 기술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의 고성능 고유 핵연료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원자력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HIPER' 핵연료의 개발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학생 원자력 논문 공모 한수원(주)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일경제신문사와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2009년 전국 대학생 원자력 논문공모'를 실시한다. 한국의 원전 산업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 국가 경제 발전과 원전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논문공모는 8월 24일~11월 23일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상(대상 500만원) 등 총 7편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논문 주제=「우리나라 원전산업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 「국가 경제 발전과 원전의 역할」(2개 중 택일)

공모 기간=8월 24일~11월 23일

(등기우편만 접수, 마감일자 우편소인 인정)

자격=국내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전문대 포함)

논문 분량=A4용지 20~25장 이내(요약본 2장 별도)

수상 특전=입사 시 우대, 국내 원전 견학 등

제출 서류=공모신청서(소정양식) 및 논문, 재학증명서 1부 한수원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khnp.co.kr 대학생 원전 논문공모)

접수처=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한수원 홍보실 대학생 원자력 논문공모 담당자 앞

문의=(02)3456-2491